

## 의미연결망분석을 이용한 2005~2014년 자살보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

김대욱\*\*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강사)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게재된 자살보도에 대해서 의미연결망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분석결과에서 보수적 시각의 〈조선일보〉는 학교폭력, 장자연, 자살방법/행위 등과 같은 이슈에 비중을 두었고 〈한겨레〉는 학교폭력, 여성, 노동자, 자살방법/행위 등과 같은 이슈에 집중하면서 〈조선일보〉와는 다른 시각으로 자살문제를 다루었다. 둘째, 시기별 비교에서 〈조선일보〉는 1시기에 주로 자살방법/원인, 2시기에는 장자연, 노 대통령, 카이스트와 같은 유명인의 자살문제, 3시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문제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1시기에는 일반인의 자살문제에, 2시기에는 장자연과 카이스트 자살문제에, 3시기에는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특히,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비중을 두고 바라보았다. 자살방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신문사 모두 공통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자살예방문제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 또한 점차 줄어들었다. 자살문제를 다루는 데 언론인의 보다 책임감 있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핵심어: 〈조선일보〉, 〈한겨레〉, 자살보도, 의미연결망분석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6612)

\*\* simon1026@empas.com

\*\*\* jhmi0410@empas.com, 교신저자

## 1. 서론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Chen, Wu, Yousuf, & Yip, 2012), 특히 OECD 가입국 중에서는 10년째 1위를 차지한다(통계청, 2014). 또한 연령별 사망원인으로 10대에서 30대까지는 1위, 40대에서 50대까지는 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통계청, 2014)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6조 4,769억 원으로 추정된다(현경래 · 이선미 · 최기춘 · 이수연 · 김재윤, 2014).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자살은 현재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이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수용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그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Iyengar & Kinder, 1987). 헬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확산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Adelman & Verbrugge, 2000; Fishman, 2006; Jones, Denham, & Springston, 2006).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유방암 관련정보를 습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 검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예방을 위해 행동한다(Cohen, Caburnay, Luke, Rodgers, Cameron, & Kreuter, 2008; Jones, Denham, & Springston, 2006). 유사한 맥락에서 자살행위를 시도하는 데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Chen, Wu, Yousuf, & Yip, 2012). 일본에서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전체 자살율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Hitosugi, Nagai, & Tokudome, 2009) 한국에서도 미디어의 자살관련보도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명희 · 이태엽 · 심유진 · 김선옥 · 홍진표, 2015). 즉, 미디어가 자살사건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면 할수록 대중은 자살에 대해 무감각한 인식을 형성하거나 자살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증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Etzersdorfer, Voracek, & Sonneck, 2001; Gould, Jamieson, & Romer, 200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보도의 양에 집중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미디어 보도의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미디어가 특정한 이슈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또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방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Entman, 1993, 2004). 비슷한 맥락에서 자살문제도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이해방식과 문제해결방안이 달라진다(Michel, Frey, Wyss, & Valach, 2000; Pirkis, Burgess, Francis,

Blood, & Jolley, 2006). 따라서 이 연구는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특정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보도하는가의 문제는 미디어 조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Carvalho, 2007; Entman, 2010; 김원용·이동훈, 2004). 따라서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미디어 조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자살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면서 자살보도준칙과 같은 자살관련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이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 2가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적용하고자 한다. 미디어의 자살보도와 관련한 이전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유목에 따라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될 여지가 높아 외적 타당성이 낮다는 단점을 지닌다(Atteveldt, 2008; Danowski, 1993). 반면 의미연결망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없이 주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므로 전체적인 의미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Popping, 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미연결망분석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 2. 문헌 검토

### 1) 자살과 미디어 보도

매스커뮤니케이션과 공중보건 학자들은 자살보도가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 첫째, 미디어의 점화효과이다. 버코비츠(Berkowitz, 1984)는 자살보도를 접한 수용자는 자살보도에 나타난 상징 또는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디어 학자들은 자살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Gould & Shaffer, 1986) 자살관련뉴스에 자주 노출되면(Philips & Carstenson, 1986)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특히, 선정적 혹은 과장된 자살보도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의 자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Gould, 2001; Stack, 2000). 미디어의 점화효과는 미디어의 보도량, 보도시간, 자살자의 지명도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Gould, Jamieson, & Romer, 2003). 특히, 특정한 자살

사건에 대한 반복보도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노출 등은 자살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유상미, 2009; Gould, 2001; Etzersdoere, Vooracek, & Sonneck, 2001).

둘째, 사회학습이론이다. 반두라(Bandura, 1973)는 인간의 행동은 다른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사회학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습과정에서 모방은 유사성이 높을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자살도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자살행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자살행위자에 대해서 동일시하여 자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감소하기 때문에 행동을 모방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김병철, 2010; 정승민·박영주, 2009; 허태균·장훈, 2008).

특히, 모방자살은 미디어의 반복적인 혹은 광범위한 자살보도에 노출될 경우 빈번하게 나타난다(Pirkis, Burgess, Francis, Blood, & Jolley, 2006). 필립스(Phillips, 1974)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베르테르효과를 동반한 모방자살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살이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후속연구에서 필립스와 동료들(Phillips, Leysna, & Paight, 1992)은 연예인의 자살에 대한 보도를 접한 사람에게서 동일시효과가 나타났으며 모방자살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미디어의 유명인에 대한 자살보도는 유명인에 대한 동일시를 가져오며 유명인의 자살을 현재 그들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한다(Tousignant, Mishara, Caillaud, Fortin, & St-Laurent, 2005). 실제로 스택(Stack, 2000)의 연구에서는 유명인의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자살보도보다 14.3배 더 많은 모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자살보도에 관한 연구들은 자살보도에 대한 노출이 모방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즉, 자살보도를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모방자살에 대한 충동이 높아 지거나 행위를 시도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미디어 보도의 양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건강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건강문제를 바라보는 미디어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Major, 2009). 하나는 건강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관심부족, 운동부족과 같이 개인의 책임문제로 보는 개인책임 프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정크푸드 레스토랑의 근접성, 유기농 마트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원인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책임 프레임이다(Kim & Willis, 2007). 건강문제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은 건강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Dorfman, Wallack, & Woodruff, 2005; Wikler, 2002).

유사한 맥락에서 자살문제 관련연구자들은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레코프와 부카(Rehkopf & Buka, 2006)는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조건이 자살률을 증

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첸과 동료들(Chen, Yip, Lee, Fan, & Fu, 2010)은 아시아에서 경제상황은 자살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 평생직장의 붕괴, 노년생활의 경제활동 불안정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한국, 홍콩,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자살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송태정·배민근·김기범, 2005; 오진경·조영태·김창엽, 2005; Kim, Kim, Kawachi, & Cho, 2011).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 자살률은 경제성장률, 소득, 실업, 고용, 이혼, 출산, 고령인구증가율, 사회복지지출증가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이상영·정진욱·김영택·윤시몬·채수미·채희란, 2014). 따라서 자살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원인규명과 해결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미디어의 시각은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의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oleman, Thorson, & Wilkins, 2011; Major, 2009). 예를 들어, 정신질환과 관련된 미디어의 시각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Sieff, 2003)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기도 한다(Corrigan, 2007). 또한 미디어의 시각에 따라 건강문제와 관련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Mechanic, McAlpine, & Rosenthal, 2001) 건강문제를 설명할 때 미디어가 이를 부정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보도할수록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ozin & Royzman, 2001). 따라서 미디어가 건강과 관련한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보도하는지에 따라서 건강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Wharf-Higgins, Naylor, Berry, O'connor, & Mclean, 2006).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식 또는 행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미셸과 동료들(Michel et al., 2000)은 미디어의 자살보도에서 자살자의 신상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시되는 경우 모방효과가 더욱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퍼키스와 동료들(Pirkis et al., 2006)도 모방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① 광범위하고 반복되는 보도, ② 유명인과 같은 현저성이 높은 보도, ③ 상세한 자살방법의 묘사, ④ 선정적인 자살보도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뉴스제목이 선정적이거나 자살행위자의 신원 또는 자살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술된 보도에 자주 노출될 경우, 실제 자살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tzersdoere, Vooracek, & Sonneck, 2001). 예를 들면, 자살방법으로 번개탄이 많이 보도하면서 자살시도자의 번개탄 사용이 증가하였다(Chen, Chen, & Yip, 2011; Tsai, Gunnell, Chou, Kuo, Lee, & Chen, 2011). 또한 이충현은 자살보도에서 언어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미국 자살예방

기금은 미디어 보도에서 언어표현이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제목에서 ‘자살’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이충현,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보도하는가가 수용자의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 또는 모방자살의 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살문제와 관련한 미디어의 시각 또는 보도성향에 대한 분석은 수용자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 2) 미디어의 정치성향과 보도성향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 시각에서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동등한 가치(비중)를 부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가치(비중)를 부여한다(Entman, 2010). 예를 들어, 유방암과 관련해서 시사잡지는 치료비용과 같은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지만 여성잡지는 유방암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 이야기에 집중한다(Andsager & Powers, 1999). 이와 같이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수용자에게 설명할 때 그 내용은 미디어의 특성 혹은 미디어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Gans, 1979; Price & Tewksbury, 1997).

쇼펠레(Scheufele, 1999)는 ‘미디어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보도성향은 크게 3가지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으로 언론인(기자) 자신의 영향이다. 뉴스의 생산과정에서 기자는 처음으로 이슈를 접하고 그 이슈가 수용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의 판단은 기자 자신의 가치관, 신념 등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조직적 차원으로 미디어 조직의 형태나 조직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미디어의 보도성향이 달라진다. 기자가 1차적으로 이슈를 접하고 선택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이슈를 보도할 것인지는 미디어 조직 내부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Shoemaker & Reese, 1996). 또한 기자가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를 결정할 때 미디어 조직의 정치성향을 고려해서 선택하기도 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으로 미디어 조직 밖으로부터의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은 미디어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Carvalho, 2007). 따라서 사회문제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는 미디어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우호적 시각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광고주에 대한 우호적 보도건수와 광고량의 긍정적 관계(최인호, 2011), 정치권력과 미디어의 역동적 관계(손승혜·이귀옥·이수연, 2014)

등과 같이 미디어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성향은 달라진다.

이와 같은 미디어 보도성향에 대한 3가지 영향요인 중에서 연구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조직 차원이다(Domke, Watts, Shah, & Fan, 1999; Entman, 2010). 한국의 뉴스제작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인과 사회 차원의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김원용·이동훈, 2004) 조직 차원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이전의 미디어 보도성향에 대한 연구는 조직 차원에서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에 주목했다. 즉, 미디어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미디어가 특정한 사회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김정아와 채백(2008)은 이해찬 총리의 골프 사건과 최연희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성향을 분석하였다. 이해찬 총리의 골프 사건의 경우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총리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총리를 뽑자고 제안한 반면, 진보적인 시각의 미디어는 실수를 저지른 총리의 행위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욕망에 사로잡혀 안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았지만 진보적인 시각의 미디어는 윤리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호주제 폐지 문제에서도 미디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였다.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호주제 존속을 통해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진보적 시각의 미디어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여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각을 보였다(이민규·김수정, 2006). 모바일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부정적 시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진보적 시각의 미디어는 중립적 시선이 주로 나타났다(김나영·하상복·손영우·최종명·고형대·임양준, 2013).

정치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이슈에서도 미디어 정치성향은 미디어의 보도성향에 영향을 줬다. 김영기(2003)는 동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진보적 시각의 미디어는 환경운동가의 주장을 비교적 빠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그에 비해 소극적으로 환경운동가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정부의 동강댐 건설 포기를 환경단체에 의한 굴욕적 포기로 설명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해서도 미디어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른 보도성향을 나타냈다(Carvalho & Burgess, 2005). 영국에서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보인 반면, 진보적 시각의 미디어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기후문제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두었으며 진보적 시각의 미디어는 기후문제를 진단하는 시각에 주목했다(주영기, 2013).

미디어의 정치성향은 과학문제를 다룰 때에도 다른 보도성향을 보였다. 정재철(2004)은 유전자 연구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시각이 미디어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진보적인 시각의 미디어는 유전자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문제와 사회적 갈등문제에 주목하였지만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유전자 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또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향상에 주목했다.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미디어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른 보도성향이 나타났다(Gollust, Lantz, & Ubel, 2009). 예를 들어, 의료복지문제에 대한 보도성향은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지녔다(손승혜·이귀옥·이수연, 2014). 진보적 시각의 미디어가 의료복지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 정보원으로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프레임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는 정부관료나 이익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책실행과 경제적 영향 프레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건강 또는 보건이슈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보도성향도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미디어의 보도성향은 미디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과는 달리 자살문제의 보도성향에 대한 이전의 연구(김연중, 2005; 김병철, 2007; 유현재·송지은, 2012)에서는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살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함으로써 미디어의 정치성향이 미디어 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단기간(6개월~1년)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미디어의 정치성향(진보/보수)에 따라 자살보도와 관련한 주요 핵심어는 무엇이며 이러한 핵심어 사이의 연결관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 연구 문제 2: 미디어의 정치성향(진보/보수)에 따른 자살보도의 특성은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3.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

앞서 언급한 2가지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두 종합일간신문(〈조선일보〉, 〈한겨레〉)에 나타난 자살 관련기사의 제목을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분석을 시작한 이유는 2004년에 자살보도 준칙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로 자살과 연관된 보도에서 이러한 노력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합일간신문의 자살관련 기사를 분석단위로 선정한 이유는 신문의 자살보도가 TV의 자살보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Stakc, 2000).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김병철(2007)은 “신문기사의 경우 TV보도와는 달리 자살관련 기사를 스크랩했다가 나중에 다시 읽을 수 있고 또 신문기사가 자살자의 자살원인이나 방법, 배경 등 자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김영옥과 허태균(2005)의 연구에서도 TV는 보도시간이 짧고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신문보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종합일간신문사 중에서 2개 신문사만을 선정한 이유와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보수적 시각을 대표하고 〈한겨레〉는 진보적 시각을 대표하는 언론사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백선기, 1997; 임동욱, 2003) 미디어 정치성향에 따른 보도성향을 살펴보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살관련보도의 제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제목은 전체기사의 핵심을 정리, 요약하면서 기사본문을 보완하는 측면을 지닌다(송경화·강범모, 2006; 정태철, 1995). 둘째, 기사제목은 수용자의 시선을 본문으로 유도하는 속성을 지닌다(Condit, Ferguson, Kassel, Thadhani, Gooding, & Parrott, 2001; Rothman, 1998). 특히, 수용자가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선택할 때 제목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조수선, 200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하기 때문에 기사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기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과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2개 신문사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다음 단계로, 검색된 기사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자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선일보〉에서 1,308개, 〈한겨레〉에서 1,303개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시기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의 기간을 3년 간격으로 3개 시점으

로 구분하였다. 3년 간격은 시기적 부분과 검색자료의 양적 균등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였다. 1시기는 2005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2시기는 2009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3시기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분석시기를 구분한 것은 이 연구의 목적이 연예인 자살과 같은 특정한 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살보도의 경향이나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기간의 균등성, 기사의 수 등을 고려해서 분석시기를 3시기로 구분하였다.

## 2) 의미연결망분석의 특징 및 분석절차

자살보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내용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분석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Atteveldt, 2008; Danowski, 1993). 구체적으로 내용분석이 가지는 한계점은 첫째, 단어 혹은 개념의 실제적 의미보다는 연구자가 작성한 분석틀(혹은 분석유목)에 의해서 그 의미가 이해된다. 둘째, 내재적(latent)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나 코더의 주관이나 판단이 개입되기 쉬우며 셋째, 분석자료를 다른 유사한 연구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Atteveldt, 2008; Danowski, 1993). 연역적 시각의 내용분석과 달리, 의미연결망분석은 사전에 설정된 분석틀에 의존하기보다는 텍스트 자체에 나타나는 단어 혹은 개념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귀납적 시각의 분석 방법이라는 특징이 있다(Popping, 2000). 구체적 장점으로는 첫째,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나 개념의 실제 의미를 파악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둘째, 단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의미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광대한 범위나 다양한 차원에서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기 쉽기 때문에(Atteveldt, 2008; Doerfel & Marsh, 2003; Rice, 2005; Veer, Lim, & Park, 2011), 의미연결망분석은 다양한 사회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이은선·임연수, 2012). 자살보도와 관련한 직접적 연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용된다. 예를 들어,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특성(이완수·최명일, 2014), 창조경제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경향(차민경·권상희, 2015),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홍주현·나은경, 2015), 한류관련 뉴스의 한국과 일본의 기사분석(정수영·황경호,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단계로 구분해서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각 신문

별 보도내용에서 제시된 단어나 개념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2단계에서는 핵심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손청난(孫淸蘭, 1992)이 제시한 공식을 사용하였다. 손청난의 공식은 기존의 도너휴(Donohue, 1973)의 공식, 즉 핵심어의 빈도수에 따라 높은 빈도수의 핵심어와 낮은 빈도수의 핵심어를 구분하는 공식을 수정해서 고빈도 핵심어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Donohue, 1973; 孫淸蘭, 1992; 장령령·홍현진, 2014에서 재인용).

$$n = (-1 + \sqrt{1+4D})/2$$

단,  $n$  = 최종선정 핵심어의 수,  $D$  = 전체 핵심어의 수

위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핵심어를 선정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총 2,651개의 핵심어 가운데 51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위등장 핵심어로 구분하면, 9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어 56개(전체 27.69%)가 해당되었다. <한겨레>의 경우 2,437개의 핵심어 가운데 49개의 핵심어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상위등장 핵심어로 구분하면, 12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어 52개(27.56%)가 해당되었다. 3단계에서는 이들 핵심어 사이의 행렬자료를 작성하였다. 즉 2단계에서 선정한 핵심어에 대하여 한국어텍스트분석 프로그램인 KrKwic(박한우·Leydesdorff, 2004)을 활용하여 핵심어와 핵심어 사이의 공동출현빈도를 이용한 행렬자료를 생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행렬자료를 바탕으로 Ucinet을 이용하여 최종 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

## 4. 분석결과

### 1) 연구 문제 1의 결과

연구 문제 1에서는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자살관련보도의 주요 핵심어는 무엇이고 이러한 핵심어 간의 연결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기반으로 중심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심성분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연결정도중심성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는지, 근접중심성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매개중심성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 간의 관계에

얼마나 관여 혹은 통제하는지를 나타낸다(Borgatti, Everett, & Johnson, 2013).

연결정도중심성에서 <조선일보>는 자살, 학교, 장자연,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예방, 아들, 동반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투신, 폭력, 학교, 왕따, 조사, 장자연, 학생, 아들, 가족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접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투신, 학교, 폭력, 왕따, 학생, 아들, 조사, 동반, 어머니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조선일보>에서는 자살, 학교, 장자연,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아들, 동반, 조사 등이 전체 자살관련보도에서 중요한 핵심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겨레>는 연결정도중심성에서 자살, 폭력, 학교, 투신, 학생, 노동자, 카이스트, 여성, 기도, 조사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드러났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비극, 진실, 죽음, 학교, 카이스트, 폭력, 수사, 노동자, 군대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접중심성에서는 자살, 죽음, 비극, 학교, 폭력, 학생, 조사, 노동자, 수사, 투신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중심성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겨레>에서는 자살, 학교, 폭력, 투신, 죽음, 카이스트, 학생, 조사, 노동자, 수사, 비극 등이 자살관련보도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 1>과 같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등장하는 핵심어가 전체구조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시각화는 Spring Embedded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였다. 다른 핵심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 핵심어는 전체연결망구조에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핵심어 사이에 관계성이 높을수록 서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였다(Kamada & Kawai, 1989). 또한 핵심어의 크기는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핵심어 사이의 선의 굵기는 핵심어 사이의 동시출현빈도가 높을수록 굵게 표시하였다.

한편, 자살관련보도 핵심어가 어떠한 연결관계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동시단어분석(co-word analysis)을 하였다. 동시단어분석은 같은 텍스트에서 언급된 두 단어는 그들이 언급하는 주제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Cambrosio, Limoges, Courtial, & Laville, 1993).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에서 동시에 언급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Zong, Shen, Yuan, Hu, Hou, & Deng, 2013).

동시단어분석 결과(<표 2>), <조선일보>는 자살-투신, 학교-폭력( $n=38$ ), 자살-예방( $n=31$ ), 자살-동반( $n=23$ ), 자살-시도( $n=17$ ), 자살-기도( $n=16$ ), 자살-왕따( $n=16$ ), 자살-학생( $n=14$ ), 장자연-소속사( $n=13$ ), 장자연-수사( $n=12$ ) 등과 같은 단어의 연결관계를 보였다. <한겨레>는 동시단어분석에서 학교-폭력( $n=38$ ), 자살-투신( $n=$

표 1.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핵심어 등장빈도와 중심성 지수

(기간: 2005~2014년)

핵심어	〈조선일보〉						〈한겨레〉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핵심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자살	546	.253	1	56.118	1	94.915	1	자살	462	.238	1	48.494	1	89.474	1
학교	59	.061	2	3.826	4	60.87	3	학교	51	.047	3	3.25	5	57.303	4
장자연	51	.036	5	1.522	7	54.369	15	폭력	50	.049	2	2.849	7	57.303	4
투신	49	.048	4	5.173	2	62.222	2	투신	44	.034	4	1.632	13	55.435	9
폭력	49	.053	3	4.123	3	60.87	3	죽음	42	.016	17	3.268	4	58.621	2
학생	36	.032	6	1.371	8	57.143	6	장자연	35	.009	36	.898	19	51	32
왕따	35	.032	6	3.135	5	57.732	5	카이스트	34	.028	7	2.937	6	54.839	11
예방	33	.025	8	.125	39	51.852	28	학생	34	.032	5	1.611	14	56.667	6
죽음	27	.005	47	.192	35	51.376	39	사회	31	.019	14	2.052	11	54.839	11
수사	23	.019	11	1.014	11	54.902	12	조사	29	.023	10	1.796	12	56.667	6
자살률	22	.006	38	.249	31	40.58	55	노동자	28	.029	6	2.133	9	56.044	8
아들	21	.02	10	1.291	9	56.566	7	수사	26	.021	12	2.263	8	55.435	9
동반	21	.022	9	1.012	12	55.446	9	여성	24	.026	8	.924	18	53.125	20
조사	20	.016	15	2.835	6	56.566	7	비극	24	.021	12	4.235	2	58.621	2
가족	19	.013	21	1.159	10	54.902	12	쌍용차	20	.012	26	.275	36	51.515	26
우울증	19	.006	38	.569	19	51.376	39	가족	19	.012	26	.55	26	53.684	16
카이스트	18	.003	55	.065	46	50.45	50	자살률	19	.004	49	.268	37	50	40
친구	17	.01	24	.827	13	54.902	12	사망	18	.007	41	.319	31	50.495	37
사람	17	.007	37	.21	33	51.852	28	분신	18	.007	41	.356	30	51	32
노 대통령	16	.008	28	.303	25	51.852	28	주민	17	.015	18	.803	21	51.515	26
한국	16	.008	28	.584	18	51.852	28	재소자	17	.023	10	.312	32	51	32
기도	16	.017	13	.664	16	53.846	16	총동	17	.015	18	.169	41	50	40
시도	16	.014	18	.175	37	51.376	39	중학생	16	.014	23	.306	34	53.684	16
인터넷	15	.006	38	.305	24	52.83	22	우울증	16	.011	30	.758	23	52.577	24
발견	15	.005	47	.197	34	51.852	28	총장	16	.013	25	.298	35	41.803	49
소속사	15	.014	18	-	-	37.838	56	기도	16	.024	9	.802	22	53.125	20
딸	15	.014	18	.455	21	53.333	19	인정	15	.007	41	.123	45	50.495	37
대구	14	.019	11	.185	36	53.846	16	시도	15	.019	14	.651	25	51.515	26
대표	14	.016	15	.746	14	52.336	24	사람	14	.005	47	.082	46	50	40
아이	13	.01	24	.488	20	53.846	16	국정원	14	.005	47	.135	44	50	40
어머니	13	.015	17	.735	15	55.446	9	복지	14	.008	40	.523	27	51.515	26
사건	12	.005	47	.276	30	51.376	39	위험	14	.014	23	.757	24	54.839	11
교사	12	.009	27	.038	51	41.481	54	유족	14	.015	18	1.053	17	54.255	15
문건	12	.012	22	.065	46	51.852	28	진실	14	.007	41	4.06	3	41.803	49
생각	11	.008	28	.123	40	51.852	28	서남표	14	.01	33	.066	48	39.844	51
부모	11	.011	23	.105	41	53.333	19	문제	14	.01	33	.462	28	53.125	20

표 1. 계속

(기간: 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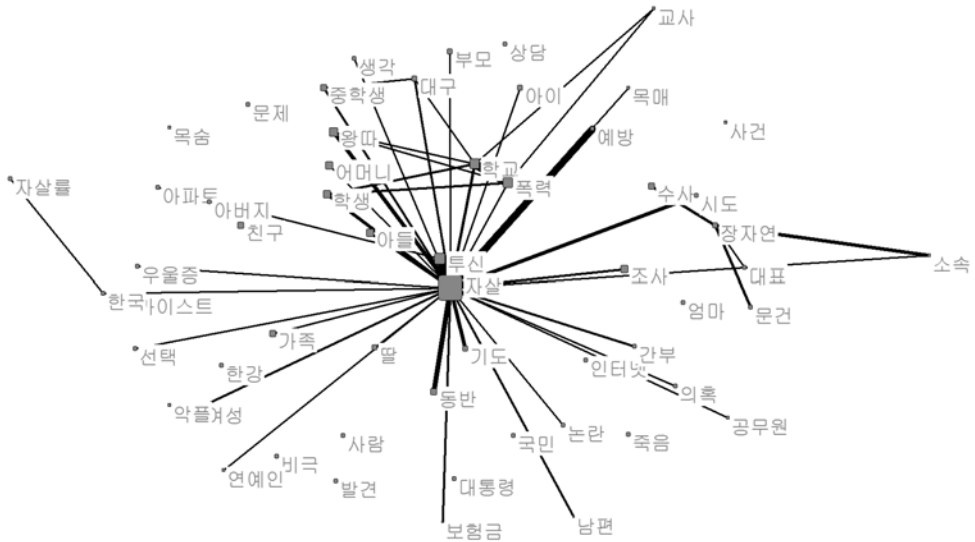
〈조선일보〉							〈한겨레〉								
핵심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핵심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보험금	11	.006	38	-	-	49.123	52	아들	13	.01	33	1.096	16	54.839	11
간부	11	.01	24	.24	32	52.83	22	아이	13	.007	41	.185	39	51.515	26
국민	11	.006	38	.382	22	53.333	19	성추행	13	.015	18	.161	43	50.495	37
공무원	10	.006	38	.042	49	50.909	44	강기훈	13	.001	51	-	-	29.651	52
여성	10	.008	28	.043	48	50.909	44	교수	13	.009	36	1.361	15	53.125	20
비극	10	.005	47	.303	25	51.852	28	의혹	13	.015	18	.39	29	52.041	25
목 매	10	.006	38	.028	52	50.909	44	국가	13	.009	36	.311	33	51.515	26
의혹	10	.008	28	.277	29	52.336	24	군대	12	.012	26	2.057	10	53.684	16
연예인	9	.005	47	.022	53	50	51	발견	12	.001	51	-	-	48.113	47
아파트	9	.008	28	.133	38	51.852	28	예방	12	.011	30	.051	49	49.515	44
선택	9	.008	28	.658	17	51.852	28	한국	12	.007	41	.237	38	51	32
논란	9	.008	28	.285	28	52.336	24	대구	12	.017	16	.185	39	53.684	16
남편	9	.006	38	-	-	49.123	52	로봇	12	.012	26	.166	42	51	32
한강	9	.005	47	.042	49	50.909	44	노 대통령	12	.004	49	.026	50	48.571	46
목숨	9	.004	54	.286	27	50.909	44	밀양	12	.009	36	.073	47	49.515	44
중학생	9	.017	13	.313	23	55.446	9	경쟁	12	.011	30	.818	20	45.946	48
아버지	9	.008	28	.105	41	52.336	24								
상담	9	.006	38	.07	45	51.376	39								
악플	9	.003	55	.092	43	50.909	44								
문제	9	.005	47	.081	44	51.852	28								

표 2.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동시대어분석

(기간: 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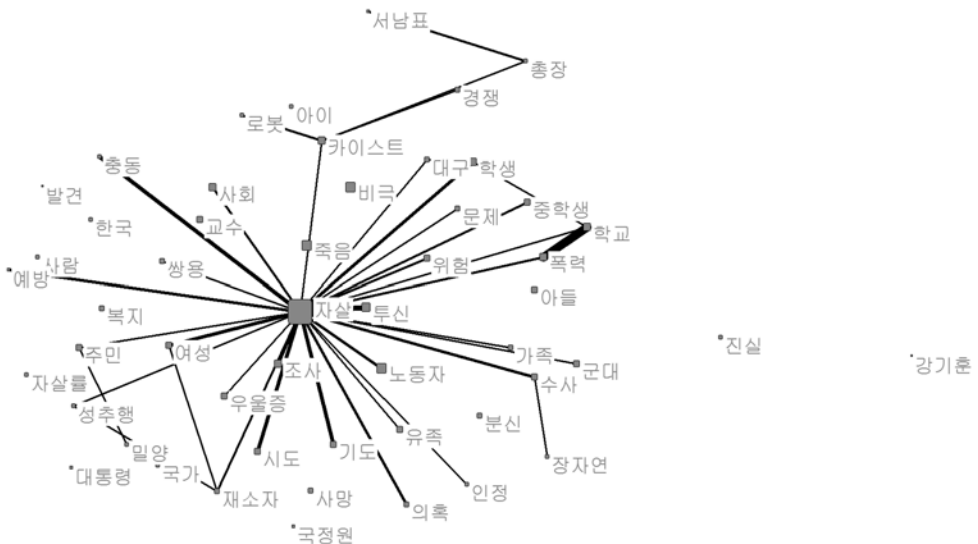
〈조선일보〉		〈한겨레〉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38	자살-투신, 학교-폭력	38	학교-폭력
31	자살-예방	23	자살-투신
23	자살-동반	17	자살-총동
17	자살-시도	16	자살-기도, 자살-시도
16	자살-기도, 자살-왕따	14	자살-여성, 자살-조사
14	자살-학생	13	자살-학생
13	장자연-소속사	12	자살-노동자
12	장자연-수사	11	자살-수사, 자살-의혹, 자살-예방
11	자살-학교, 장자연-문건	10	자살-사회, 자살-재소자, 자살-위험
10	자살-아들		

23), 자살-충동( $n=17$ ), 자살-기도( $n=16$ ), 자살-시도( $n=16$ ), 자살-여성 & 자살-조사( $n=14$ ), 자살-학생( $n=13$ ), 자살-노동자( $n=12$ ), 자살-수사, 자살-의혹, 자살-예방( $n=11$ ) 등과 같은 연결관계를 보였다.



주: 전체연결망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5회 이상 연결된 핵심어 사이의 관계만 제시함.

그림 1. 〈조선일보〉의 전체연결망구조



주: 전체연결망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5회 이상 연결된 핵심어 사이의 관계만 제시함.

그림 2. 〈한겨레〉의 전체연결망구조

2) 연구 문제 2의 결과

연구 문제 2에서는 연구 문제 1에서 나타난 결과가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각 시기별로 등장하는 핵심어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QAP상관관계(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Correl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3〉). QAP상관관계분석은 행렬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N × N의 행렬표의 형태를 이용해서 행과 열이 무작위로 치환된 이후 상관관계의 값을 재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일반적인 상관분석에서 벡터 값을 사용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QAP상관관계분석은 행렬자료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응자료(dyadic data)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Tutzauer, 1993; 전범수, 2005 재인용).

먼저 〈조선일보〉를 살펴보면 1시기, 2시기, 3시기 사이의 상관계수는 .25~.59의 범위를 보였으며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의 경우에도 1시기, 2시기, 3시기 사이의 상관관계가 1%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 = .32 \sim .36$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선일보〉와 〈한겨레〉 모두 1시기부터 3시기까지 자살보도에 동원된 핵심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각 신문의 시기별 상위 핵심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일보〉의 경우(〈표 4〉), 1시기의 연결정도중심성에서 자살, 투신, 학교, 예방, 동반, 기도, 왕따, 목 매, 가족, 사람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한국, 가족, 학교, 아들, 투신, 자살률, 죽음, 우울증, 딸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근접중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가족, 투신, 사람, 한국, 기도, 왕따, 딸, 예방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1시기에 〈조선일보〉에서는 자살, 학교, 투신, 왕따, 예방, 죽음, 가족, 우울증, 사람, 한국, 기도, 딸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주요하게 사용되었다.

표 3.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시기별 상관관계분석

	1시기	2시기	3시기
1시기	1	.32*	.36*
2시기	.35*	1	.35*
3시기	.59*	.25*	1

\*  $p < .01$ .

주: 대각선 아래는 〈조선일보〉, 대각선 위는 〈한겨레〉의 분석결과임.



표 4. <조선일보>의 시기별 상위 20대 핵심어의 중심성 지수

핵심어	1시기(2005~2008)						2시기(2009~2011)						3시기(2012~2014)					
	연결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연결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연결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자살	.343	1	43.268	1	5.496	1	.215	1	38.733	1	5.229	1	.247	1	56.367	1	24.242	1
학교	.043	3	2.814	4	5.338	2	-	-	6.388	2	-	-	.083	2	3.158	8	21.293	2
장차연	-	-	-	-	-	-	.17	2	2.732	3	5.124	2	.001	52	3.377	5	17.125	52
투신	.057	2	2.565	5	5.328	4	.038	7	2.015	4	5.1	4	.077	3	4.188	3	21.293	2
폭력	.005	29	-	-	5.152	35	.006	26	1.541	5	4.965	36	.049	4	3.193	7	21.293	2
학생	.019	11	-	-	5.308	16	.013	16	1.437	6	5.059	16	.026	8	.567	18	20.818	7
왕따	.033	7	.206	11	5.323	8	.003	33	1.31	7	5.054	23	.041	5	3.357	6	21.053	5
예방	.038	4	.108	14	5.318	10	.019	10	.835	8	5.054	23	.006	33	.07	34	20.072	34
죽음	.014	18	2.468	8	5.308	16	.01	18	.312	9	4.987	34	.002	48	-	-	17.284	51
수사	.01	24	-	-	5.308	16	.061	4	.17	10	4.991	33	.014	18	.588	17	20.364	18
자살률	.014	18	2.532	7	5.161	34	-	-	.111	11	-	-	.002	48	.076	33	18.065	50
아들	.019	11	2.565	5	5.176	32	-	-	.097	12	-	-	.04	6	1.227	11	20.896	6
동반	.038	4	.087	15	5.313	13	.019	10	.065	13	5.059	16	.016	15	.606	16	20.513	15
조사	-	-	-	-	-	-	.01	18	.065	13	4.96	37	.021	11	1.165	13	20.741	11
가족	.024	9	4.719	3	5.338	2	-	-	.054	15	-	-	.019	13	3.972	4	20.588	12
우울증	.019	11	2.273	9	5.318	10	.003	33	.043	16	5.054	23	.006	33	.057	36	20.072	34
카이스트	-	-	-	-	-	-	.016	12	-	-	5.068	10	-	-	-	-	-	-
친구	-	-	-	-	-	-	-	-	-	-	-	-	.024	10	1.193	12	20.818	7
사람	.024	9	.13	12	5.328	4	.003	33	-	-	5.054	23	.012	22	.444	20	20.217	22
노대통령	-	-	-	-	-	-	.029	8	-	-	5.086	7	.005	36	.043	39	20	36

주 1: <조선일보>는 56개의 핵심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면관계상 상위 20개 핵심어의 분석결과만을 제시함.

주 2: 핵심어의 시기별 빈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핵심어에 대해 1시기, 2시기, 3시기의 등장빈도, 연결정도, 매개, 근접중심성을 제시함. 예를 들어, '자살'의 경우 1시기에 151회, 2시기에 136회, 3시기에 259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연결정도, 매개, 근접중심성을 함께 제시함.

2시기에 연결정도중심성에서는 자살, 투신, 소속사, 대표, 문건, 투신, 노 대통령, 인터넷, 동반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장자연,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예방, 죽음, 수사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에서는 자살, 장자연, 인터넷, 투신, 대표, 문건, 사건, 노 대통령, 의혹, 비극, 카이스트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2시기에 <조선일보>는 자살, 장자연, 투신, 수사, 노 대통령, 인터넷, 문건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자살 관련보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3시기에 연결정도중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투신, 폭력, 왕따, 아들, 어머니, 학생, 중학생, 친구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사건, 투신, 가족, 장자연, 왕따, 폭력, 학교, 어머니, 딸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근접중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투신, 폭력, 왕따, 아들, 친구, 어머니, 중학생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정리하면, 3시기에 <조선일보>에서는 자살, 학교,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아들, 친구, 어머니, 사람, 중학생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자살관련보도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동시단어분석 결과(<표 5>)를 살펴보면 1시기에 자살-투신( $n=8$ ), 자살-예방, 자살-동반, 자살-기도, 자살-목 매( $n=5$ ), 자살-시도( $n=4$ ), 자살-학교, 자살-왕

표 5. <조선일보>의 시기별 주요 핵심어의 동시단어분석

1시기(2005~2008)		2시기(2009~2011)		3시기(2012~2014)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8	자살-투신	13	장자연-소속사	37	학교-폭력
5	자살-예방	12	장자연-수사	24	자살-투신
	자살-동반	10	장자연-문건	20	자살-예방
	자살-기도	7	장자연-대표	13	자살-동반
자살-목 매	소속사-대표		12	자살-왕따	
4	자살-시도	6	자살-투신	10	자살-학생
3	자살-학교		자살-예방	9	자살-대구
	자살-왕따	자살-동반	자살-중학생		
	자살-우울증	자살-남편	8	자살-조사	
	자살-보험금	자살-장자연		자살-학교	
자살-간부	4	자살-기도	8	학생-폭력	
		문건-수사		학교-학생	
	3	자살-인터넷			
			자살-대표		
			자살-여성		

표 6. <한겨레>의 시기별 상위 20대 핵심어 중심성 지수

핵심어	빈도	1시기(2005~2008)						2시기(2009~2011)						3시기(2012~2014)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자살	150	.304	1	41,196	1	5,842	1	13,896	1	55,048	1	13,896	1	.223	1	52,378	1	18,889	1
학교 폭력	4	.022	10	2,536	6	5,667	2	11,697	40	.237	21	11,697	40	.082	3	4,315	7	17,057	2
투신	7	.029	8	2,536	6	5,667	2	11,617	42	.026	27	11,617	42	.085	2	4,444	6	17,057	2
죽음	10	.032	7	2,706	3	5,648	10	12,655	11	.046	3	12,655	11	.026	9	3,59	28	16,452	22
장자연	6	.003	29	-	-	1,961	37	12,814	5	.021	15	12,814	5	.019	13	4,576	5	16,776	9
카이스트	-	-	-	-	-	-	-	12,593	16	.028	11	12,593	16	-	-	-	-	-	-
학생	1	.003	29	-	-	5,443	34	12,75	7	.083	2	13,01	2	.005	39	7,059	3	14,956	41
사회	4	.019	13	2,745	2	5,654	6	12,718	9	.025	12	12,75	7	.051	4	1,057	18	16,944	5
조사	4	.022	10	-	-	5,629	21	12,846	3	.018	17	12,718	9	.019	13	.268	29	16,452	22
노동자	1	.006	25	-	-	5,629	21	12,846	3	.037	6	12,846	3	.013	20	.124	33	16,346	31
수사	6	.022	10	-	-	5,635	17	12,624	13	.039	4	12,75	7	.034	6	4,588	4	16,887	6
여성	13	.074	3	.176	10	5,654	6	12,439	28	.032	8	12,624	13	.013	20	2,636	11	16,721	10
비극	1	.003	29	-	-	1,961	37	12,718	9	.005	36	12,439	28	.016	16	.68	22	16,612	14
쌍용차	-	-	-	-	-	-	-	12,718	9	.021	15	12,718	9	.03	7	11,259	2	17,057	2
가족	7	.016	15	.157	11	5,654	6	12,624	13	.016	18	12,624	13	.016	16	.984	19	16,721	10
지살틀	5	-	-	-	-	-	-	12,562	19	-	-	12,624	13	.006	34	-	-	16,399	24
사망	4	.006	25	-	-	5,635	17	12,562	19	.009	29	12,562	19	.01	29	1,196	16	16,505	19
분신	8	.013	16	-	-	5,629	21	11,435	46	.005	36	11,435	46	.005	39	.606	23	15,089	38
주민	3	.003	29	-	-	5,623	28	12,439	28	.005	36	12,439	28	.027	8	2,485	12	16,721	10

주 1: <한겨레>는 52개의 핵심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면관계상 상위 20개 핵심어의 분석결과만을 제시함.

주 2: 핵심어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핵심어에 대해 1시기, 2시기, 3시기의 등장빈도, 연결정도, 매개, 근접 중심성을 제시함. 예를 들어, '자살'의 경우 1시기에 150회, 2시기에 122회, 3시기에 190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연결정도, 매개, 근접 중심성을 함께 제시함.

따, 자살-우울증, 자살-보험금, 자살-간부( $n=3$ ) 등이 주요하게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2시기에는 장자연-소속사( $n=13$ ), 장자연-수사( $n=12$ ), 장자연-문건( $n=10$ ), 장자연-대표, 소속사-대표( $n=7$ ), 자살-투신, 자살-예방( $n=6$ ), 자살-동반, 자살-남편( $n=5$ ), 자살-장자연, 자살-기도, 문건-수사( $n=4$ ) 등이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3시기에는 학교-폭력( $n=37$ ), 자살-투신( $n=24$ ), 자살-예방( $n=20$ ), 자살-동반( $n=13$ ), 자살-왕따( $n=12$ ), 자살-학생( $n=10$ ), 자살-대구, 자살-중학생( $n=9$ ), 자살-조사, 자살-학교, 학생-폭력, 학교-학생( $n=8$ ) 등이 주요하게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한겨레〉의 시기별 상위 핵심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우선 1시기의 연결정도중심성에서 자살, 재소자, 여성, 기도, 성추행, 충동, 투신, 폭력, 시도, 학교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사회, 투신, 진실, 예방, 학교, 폭력, 기도, 재소자, 여성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근접중심성의 경우 자살, 학교, 폭력, 기도, 재소자, 사회, 여성, 아들, 가족, 성추행, 예방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한겨레〉는 1시기에 자살관련문제를 다룰 때 자살, 학교, 폭력, 투신, 사회, 여성, 재소자, 기도, 성추행, 예방 등을 주요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시기에 연결정도중심성에서는 자살, 카이스트, 투신, 노동자, 조사, 유족, 총장, 수사, 교수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카이스트, 비극, 조사, 학생, 사망, 중학생, 죽음, 교수, 장자연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근접중심성에서는 자살, 카이스트, 조사, 교수, 죽음, 유족, 학생, 노동자, 사회, 비극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2시기에 〈한겨레〉는 자살관련보도에서 자살, 죽음, 카이스트, 학생, 조사, 노동자, 비극, 유족, 교수 등과 같은 핵심어들을 비중 있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시기에 연결정도중심성에서 자살, 학교, 폭력, 여성, 학생, 노동자, 위험, 대구, 죽음, 쌍용차, 주민 등이 10대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자살, 비극, 카이스트, 노동자, 죽음, 폭력, 학교, 진실, 국정원, 우울증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폭력, 여성, 학생, 노동자, 위험, 대구, 죽음, 쌍용차, 주민 등이 상위 10대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3시기에 〈한겨레〉는 자살관련보도에서 자살, 학교, 폭력, 죽음, 학생, 노동자, 비극, 주민, 대구 등과 같은 핵심어들을 비중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동시단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7〉) 1시기에는 자살-충동, 자살-기도( $n=10$ ), 자살-여성, 자살-재소자( $n=9$ ), 자살-투신, 재소자-성추행( $n=7$ ), 여성-재소자

(n=6), 자살-시도, 자살-수사(n=5), 자살-성추행, 자살-조사(n=4) 등의 연결관계가 비중 있게 나타났다. 2시기에는 자살-투신, 카이스트-로봇(n=8), 장자연-수사(n=7), 자살-카이스트, 자살-수사, 자살-위험, 노동자-투신, 카이스트-학생, 카이스트-총장, 로봇-경쟁(n=4) 등이 비중 있게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마지막 3시기에는 학교-폭력(n=32), 자살-학생, 자살-시도(n=10), 자살-투신(n=8), 자살-노동자, 자살-예방(n=7), 자살-학교, 자살-폭력, 자살-사회, 자살-중학생, 자살-대구, 대구-학생, 밀양-주민(n=6) 등이 비중 있는 연결관계로 나타났다.

표 7. <한겨레>의 시기별 주요 핵심어 동시단어분석

1시기(2005~2008)		2시기(2009~2011)		3시기(2012~2014)	
연결빈도	핵심어 - 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 - 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 - 핵심어
10	자살 - 총동	8	자살 - 투신	32	학교 - 폭력
	자살 - 기도		카이스트 - 로봇	10	자살 - 학생
9	자살 - 여성	7	장자연 - 수사		
	자살 - 재소자	6	자살 - 카이스트	8	자살 - 투신
7	자살 - 투신		자살 - 조사	7	자살 - 노동자
	재소자 - 성추행		자살 - 유족		자살 - 예방
6	여성 - 재소자		서남표 - 총장	6	자살 - 학교
5	자살 - 시도	5	카이스트 - 경쟁		자살 - 폭력
	자살 - 수사	4	자살 - 노동자		자살 - 사회
4	자살 - 성추행		자살 - 수사		자살 - 중학생
	자살 - 조사		자살 - 위험		자살 - 대구
			노동자 - 투신		6
		카이스트 - 학생	5	밀양 - 주민	
		카이스트 - 총장		자살 - 주민	
		로봇 - 경쟁	자살 - 위험		
		자살 - 학생	자살 - 의혹		
		자살 - 쌍용차			
		자살 - 가족			
		자살 - 총동			
		자살 - 중학생			
		자살 - 우울증			
		자살 - 인정			
		자살 - 의혹			
		자살 - 예방			
		학교 - 폭력			

##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문제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살보도에 대하여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 1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어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2에서는 각 신문사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살보도의 경향 및 특징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3시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문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등장빈도와 중심성 지수(연결정도, 매개, 근접)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선일보>에서는 자살, 학교, 장자연,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아들, 동반, 조사 등이 전체적으로 자살관련보도에서 중요한 핵심어로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 <조선일보>는 자살문제를 학교폭력, 장자연, 자살방법/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겨레>의 경우 자살, 학교, 폭력, 투신, 죽음, 카이스트, 학생, 조사, 노동자, 수사, 비극 등이 자살관련보도에서 중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겨레>에서는 자살관련문제를 학교폭력, 여성, 노동자, 자살방법/행위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 문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1시기에는 자살, 학교, 투신, 왕따, 예방, 죽음, 가족, 우울증, 사람, 한국, 기도, 딸 등이 주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시기에는 자살, 장자연, 투신, 수사, 노 대통령, 인터넷, 문건 등이 중요한 핵심어이며 3시기에는 자살, 학교,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아들, 친구, 어머니, 사람, 중학생 등이 중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1시기에는 주로 자살방법/원인, 2시기에는 장자연, 노 대통령, 카이스트와 같은 유명인의 자살사건, 3시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겨레>의 경우 1시기에는 자살, 학교, 폭력, 투신, 사회, 여성, 재소자, 기도, 성추행, 예방 등이 주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시기에는 자살, 죽음, 카이스트, 학생, 조사, 노동자, 비극, 유족, 교수 등이 주요한 핵심어이며, 3시기에는 자살, 학교, 폭력, 죽음, 학생, 노동자, 비극, 주민, 대구 등이 주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겨레>는 1시기에는 학교, 여성 등 특정 집단의 자살문제, 2시기에는 장자연과 카이스트 자살 등의 자살문제, 3시기에는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노동자의 자살문제 등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살문제

를 보도할 때 미디어 조직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수적 시각의 미디어들은 건강문제의 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진보적 시각의 미디어는 사회구조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Gollust & Lantz, 2009; Kluegel & Smith, 1986). 이와 유사하게 자살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한겨레>는 대체로 <조선일보>보다 다양한 계층의 문제 또는 사회문제의 시각에 비중을 뒀다. 여성, 재소자, 군대, 학생, 교수, 노동자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자살문제를 보도하면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혹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접근했다.

시기별 비교에서도 <조선일보>는 2시기에 장자연 사건에 집중한 반면 <한겨레>는 카이스트 사건에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 3시기에 <한겨레>는 대구의 학생 자살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조선일보>는 높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의 고위급 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관심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한겨레>도 장자연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장자연 사건보다 카이스트 문제에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3시기에 <한겨레>는 자살관련보도에서 '대구'라는 지역에 비중을 두었지만 <조선일보>는 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대구는 정치성향이 보수적 이미지여서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표가 부정적 동시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이상영 외, 2014)이었기 때문에 <한겨레>가 비중 있게 다루었을 것으로 추론한다. 또한 3시기는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시기였고, 특히 이 시기에 대구에서 학생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한겨레>에서 대구의 자살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대구의 자살문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동일한 자살문제를 바라보는 데 서로 다른 비중을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자살문제를 보도할 때 공통적으로 장자연, 카이스트 사건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과 같이 특정한 자살사건이나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살보도를 통한 모방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자살보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연예인, 정치인 등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자살모델로서의 동일시를 더 높게 일으키기 때문에 더 쉽게 모방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Fekete & Macsai, 1990; Stack, 2000; Tousignant, Mishara, Caillaud, Fortin, & St-Laurent, 2005). 반대로 유명인에 대한 자살보도가 감소하면 자살 문제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어 자살률이 감소하기도 한다(안명희 외, 2015). 하지만 한국

의 언론은 유명인의 자살보도를 할 때 무분별한 경쟁보도에 집중하거나(김인숙, 2009) 자살과 연관된 우울증에 대해서 심층적인 취재를 통한 대안제시보다는 흥미 위주의 프레임과 기사의 클릭 수 혹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프레임을 주로 활용한다(노수진·윤영민, 2014). 이러한 언론사의 자살보도에 대한 시각은 보도내용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수용자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고(Fu & Chen, 2003), 특히 청소년이나 노년층의 모방자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Stack, 2000). 또한 최근 자살률 경향이 청소년층과 노년층에서 뚜렷이 증가함을 감안한다면(통계청, 2014) 자살보도 시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어떤 용어를 통해서 설명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수용자를 고려한 언론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자살문제를 상담하거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측면의 접근이나 근본적인 자살예방대책, 정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자살방법이나 장소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1시기와 비교해서 2시기, 3시기에 전체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살방법, 장소 등과 관련한 특정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학교폭력과 연관된 자살문제를 설명할 때 아파트, 번개탄, 한강 등과 같은 자살방법이 연상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세 시기에 공통적으로 동반, 투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겨레>도 유명인의 자살문제를 보도할 때 목 매, 비판, 동반 등과 같은 단어를 언급하였다. 자살방법과 연관된 이러한 단어의 직접적 언급은 모방자살을 시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살보도준칙 등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인 자살방법, 장소 등을 제시한 언론보도의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2001년부터 미디어에서 질식에 의한 자살을 많이 언급하면서 ‘목을 매는 방법’을 이용한 자살이 증가하였고(Chen, Liao, Teng, Tsai, Fan, & Lee, 2012) 2012년에는 미디어에서 질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자살이 줄어들었다(안명희 외, 2015). 마찬가지로 2008년에는 유명 연예인의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된 이후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급증했다(Lee, Ahn, Lee, Park, & Hong, 2014).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김병철(2010)은 연예인의 자살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보도에서 선정적 묘사, 자세한 자살방법 서술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살방법이나 장소 등과 같이 자극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살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약 10년의 시간 흐름 속



에서 장기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분석대상을 신문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살보도에서 다른 미디어보다 신문의 효과는 크다(김병철, 2007).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TV라는 미디어는 전체 조사자의 80% 이상이 소유하고 하루 미디어 이용시간의 50%에 해당할 정도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방송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방송을 통한 자살관련보도 내용이나 경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병철(2007)은 신문과 방송에서 자살보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신문과 방송의 자살보도는 유사점도 있지만 특정 단어의 비중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미디어의 차이에 따라 특정한 상황 혹은 단어에 대한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별 보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둘째, 기사제목만을 분석하였다. 앞서 논의한 대로 기사제목은 기사의 대표성이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태철, 1995; 조수선, 2005). 하지만 기사제목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 기사내용에서의 문장과 문장,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모두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자살보도의 경향이나 특징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한 시각에서 박대민(2016)은 뉴스문장 연결망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사제목에 나타난 단어와 단어 관계를 넘어서 문장 차원에서 일종의 말뭉치를 찾아 분석함으로써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김나영·하상복·손영우·최종명·고형대·임양준 (2013). 모바일 투표에 대한 국내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44-74.
- 김병철 (2007). 한국언론의 자살보도에 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스피치&커뮤니케이션〉, 8권, 252-275.
- 김병철 (2010).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예측 변인 연구: 자살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46-362.
- 김연중 (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권

- 6호, 140-165.
- 김영기 (2003). 사회운동과 언론의 환경문제 구성하기: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1권 1호, 45-90.
- 김영욱·허태균 (2005). 자살과 미디어: 한국일간신문의 자살보도. <한국자살예방협회 심포지엄 발표집>, 1-23.
- 김원용·이동훈 (2004). 신문의 보도 프레임 형성과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351-380.
- 김인숙 (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자 효과: 언론의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5-36.
- 김정아·채 백 (2008). 언론의 정치성향과 프레임: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권, 232-267.
- 노수진·영민 (2013). 우울증에 관한 언론 보도 분석: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1권, 5-26.
- 박한우·Leydesdorff,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권 5호, 1377-1388.
- 백선기 (1997). 제15대 총선 보도시의 가십기사 유형과 심층구조. <한국언론학보>, 41권, 41-107.
- 손승혜·이귀옥·이수연 (2014). 의료복지 기사의 주요특성과 프레임 비교분석: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정권의 변화와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306-330.
- 송경화·강범모 (2006). 신문기사의 언어 사용 양상: 코퍼스언어학적 접근. <인지과학>, 17권 4호, 255-269.
- 송태정·배민근·김기범 (2005).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서울: LG경제연구원.
- 안명희·이태영·심유진·김선옥·홍진표 (2015). 2012년 자살률 감소와 미디어 보도와의 관련성 분석. <한국신경정신학회지>, 54권 2호, 216-221.
- 오진경·조영태·김창엽 (2005). 2000년 우리나라 성인 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보건과사회과학>, 18권, 191-210.
- 유상미 (2009). <폭력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 사회학습이론과 둔감화 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현재·송지은 (2012).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관련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인터넷 신문(대안지)과 전통적 신문(연장지)의 차이 비교. <보건사회연구>, 32권 2호, 427-467.
- 이민규·김수정 (200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4권, 132-162.
- 이상영·정진욱·김영택·윤시몬·채수미·채희 (2014).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 간 격차요인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완수·최명일 (2014). 한국 대통령 죽음에 대한 집단기억: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사후평가에 대한 미디어의 언어구성.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123-152.
- 이은선·임연수 (2012). 페이스북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탐색적

- 연구: 의미연결망을 통한 메시지 구조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14권 3호, 124-154.
- 이충현 (2004). 미디어의 자살관련보도 방법과 태도에 대한 외국권고안 고찰: WHO 권고안과 미국 정신의학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과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 서울: 한국 자살예방협회.
- 임동욱 (2003). 정치보도 당파성: 가식적 공정정보보다 솔직한 당파성 필요. <신문과 방송>, 9월 호, 72-75.
- 장령령 · 홍현진 (2014). 학술지 중요도와 키워드 순서를 고려한 단어동시출현 분석을 이용한 독서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권 1호, 295-318.
- 전범수 (2005). 글로벌 통신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구조: 1990~2004. <한국방송학보>, 19권 1호, 47-75.
- 정수영 · 황경호 (2015). 한·일 주요 일간지의 한류관련 뉴스프레임과 국가이미지: 기사 헤드 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3호, 300-331.
- 정승민 · 박영주 (2009).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 연구>, 8권 2호, 153-182.
- 정재철 (2004). 한국신문의 유전자 연구 프레임 비교분석: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5권, 135-162.
- 정태철 (1995). 제목소비자의 증가와 신문제목의 이해도.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203-208.
- 조수선 (2005). 온라인 신문기사의 제목과 개요 효과.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5-32.
- 주영기 (2013). 한국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기후변화 뉴스 프레임링 차이 연구. <언론과 학연구>, 13권 3호, 591-626.
- 차민경 · 권상희 (2015). 언론의 '창조경제'에 대한 의제설정 의미연결망분석.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88-120.
- 최인호 (2011). 신문의 대기업 호의보도와 광고의 상관관계. <한국언론학보>, 55권 3호, 248-270.
- 통계청 (2014). <2013년 사망원인 통계>. URL: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30183](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30183).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2014 한국언론연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허태균 · 장 훈 (2008). 자살 예방과 대중매체의 역할. 한국자살예방학회 (편), <자살의 이해와 예방> (325-342쪽). 서울: 학지사.
- 현경래 · 이선미 · 최기춘 · 이수연 · 김재윤 (2014). <건강보건정책 우선순위설정을 위한 주요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홍주현 · 나은경 (2015).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보수 중편채널뉴스의 피해자 범주화 및 단어 네트워크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69-106.
- 孫淸蘭 (1992). 高頻詞與低頻詞的界分及詞頻估算法. <情報科學>, 13(2), 28-32.
- Adelman, R. C., & Verbrugge, L. M. (2000). Death makes news: The social impact of disease on newspaper coverag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41(3), 347.
- Andsager, J. L., & Powers, A. (1999). Social or economic concerns: How news and women's

- magazines framed breast cancer in the 1990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3), 531-550.
- Atteveldt, W. H. (2008). *Semantic network analysis: Techniques for extracting, representing, and querying media content*. North Charleston, SC: Book Surge Publishing.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rkowitz, L. (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3), 410-427.
- Borgatti, S. P., Everett, M. G., & Freeman, L. C. (2002).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Borgatti, S. P., Everett, M. G., & Johnson, J. C. (2013). *Analyzing social network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Cambrosio, A., Limoges, C., Courtial, J. P., & Laville, F. (1993). Historical scientometrics – mapping over 70 years of biological safety research with co-word analysis. *Scientometrics*, 27(2), 119-143.
- Carvalho, A. (2007). Ideological cultures and media discourses on scientific knowledge: Re-reading news on climate chang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6, 223-243.
- Carvalho, A., & Burgess, J. (2005). Cultural circuits of climate change in U.K. broadsheet newspapers, 1985-2003. *Risk Analysis*, 25, 1457-1469.
- Chen Y. Y., Yip, P. S. F., Lee, C., Fan, H. F., & Fu, K. W. (2010). Economic fluctuations and suicide: A comparison of Taiwan and Hong Kong. *Social Science & Medicine*, 71(12), 2083-2090.
- Chen, Y. Y., Liao, S. F., Teng, P. R., Tsai, C. W., Fan, H. F., Lee, W. C., & Cheng, A. T. (2012). The impact of media reporting of the suicide of a singer on suicide rates in Taiwa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 215-221.
- Chen, Y. Y., Wu, K. C. C., Yousuf, S., & Yip, P. S. F. (2012). Suicide in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Epidemiologic Reviews*, 34, 129-144.
- Cohen, E. L., Caburnay, C. A., Luke, D., Rodgers, S., Cameron, G. T., & Kreuter, M. W. (2008). Cancer coverage in general-audience and black newspaper. *Health Communication*, 23, 427-435.
- Coleman, R., Thorson, E., & Wilkins, L. (2011). Testing the effect of framing and sourcing in health news storie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6(9), 941-954.
- Condit, C. M., Ferguson, A., Kassel, R., Thadhani, C., Gooding, H. C., & Parrott, R. (2001). An exploring study of the impact of news headlines on genetic determinism. *Science Communication*, 22(4), 379-395.
- Corrigan, P. W. (2007). How clinical diagnosis might exacerbate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Social Work*, 52(1), 31-39.
- Danowski, J. (1993). Network analysis of message content. In W. D. Richards Jr & G. A. Barnett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pp. 197-222). Stanford, CT: Ablex.
- Doerfel, M. L., & Marsh, P. S. (2003). Candidate-issue positioning in the context of presidential debate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1(3), 212-237.
- Domke, D., Watts, M., Shah, D., & Fan, D. (1999). The politics of conservative elites and the 'liberal media' argu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9, 35-58.
- Donohue, J. C. (1973). *Understanding scientific literature: A bibliographic approach*.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Dorfman, L., Wallack, L., & Woodruff, K. (2005). More than a message: Framing public health advocacy to change corporate practice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2(3), 320-326.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M. (2004). *Projections of power: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ntman, R. M. (2010). Media framing biases and political power: Explaining slant in news of campaign 2008. *Journalism*, 11(4), 389-408.
- Etzersdorfer, E., Voracek, M., & Sonneck, G. (2001). A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imitational suicides with newspaper distribution.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 251.
- Fekete, S., & Macsai, E. (1990). Hungarian suicide models, past and present. In G. Ferrari (Ed.), *Suicidal behavior and risk factors* (pp. 149-156). Bologna: Monduzzi Editore.
- Fishman, J. M. (2006). Mass media and medicine: When the most trusted media mislead. *Mayo Clinic Proceedings*, 81, 291-293.
- Fu, K. W., & Chan, C. H. (2013). A study of the impact of thirteen celebrity suicides on subsequent suicide rates in South Korea from 2005 to 2009. *PLoS ONE*, 8(1): e53870, DOI: 10.1371/journal.pone.0053870.
- Gans, H. J. (1979). Symbolic ethnicity: The future of ethnic groups and cultures in America. *Ethnic and Racial Studies*, 2(1), 1-20.
- Gollust, S. E., & Lantz, P. M. (2009). Communicating population health: Print news media coverage. *Social Science & Medicine*, 69, 1091-1098.
- Gollust, S. E., Lantz, P. M., & Ubel, P. A. (2009). The polarizing effect of news media messages about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12), 2160-2167.
- Gould, M. S. (2001). Suicide and the media. In H. Hendin & J. J. Mann (Eds.), *Suicide prevention: Clinical and scientific aspects* (pp. 200-224). New York, NY: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Gould, M. S., & Shaffer, D. (1986). The impact of suicide in television movies: Evidence of imita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5, 690-694.
- Gould, M., Jamieson, P., & Romer, D. (2003). Media contagion and suicide among the you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1269-1284.
- Hitosugi, M., Nagai, T., & Tokudome, S. (2009). Proposal of new ICD code for suicide by charcoal burning. *Journal of Epidemiology Community Health*, 63(10), 862-863.
- Iyenga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nes, K. O., Denham, B. E., & Springston, J. K. (2006). Effects of mass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breast cancer screening: Advancing agenda-setting theory in health context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34(1), 94-113.
- Kamada, T., & Kawai, S. (1988). An algorithm for drawing general undirected graphs. *Information processing Letters*, 31(1), 7-15.
- Kim, S. H., & Willis, L. A. (2007). Talking about obesity: News framing of who is responsible for causing and fixing the problem.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 359-376.
- Kim, S. Y., Kim, M. H., Kawachi, I., & Cho, Y. (2011). Comparative epidemiology of suicide

- in South Korea and Japan: Effects of age, gender and suicide methods. *Crisis*, 32, 5-14.
- Kluegel, J. R., & Smith, E. R. (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 Lee, A. R., Ahn, M. H., Lee, T. Y., Park, S., & Hong, J. P. (2014). Rapid spread of suicide by charcoal burning from 2007 to 2011 in Korea. *Psychiatry Research*, 219, 518-524.
- Major, L. H. (2009). Break it to me harshly: The effects of intersecting news frames in lung cancer and obesity coverag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4, 174-188.
- Mechanic, D., McAlpine, D. D., & Rosenthal, M. (2001). Are patients' office visits with physicians getting shorter?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4, 198-204.
- Michel, K., Frey, C., Wyss, K., & Valach, L. (2000). An exercise in improving suicide reporting in print media. *Crisis*, 21(2), 71-79.
- Phillips, D.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40-354.
- Phillips, D., & Carstensen, L. L. (1986). Clustering of teenage suicides after television news stories about suicid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5, 685-689.
- Phillips, D., Lesyna, K., & Paight, D. J. (1992). Suicide and the media. In R. W. Maris, A. L. Berman, J. T. Maltzberger, & R. I. Yufit (Eds.),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uicide* (pp. 499-519). New York, NY: Guilford.
- Pirkis, J. E., Burgess, P. M., Francis, C., Blood, R. W., & Jolley, D.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reporting of suicide and actual suicide in Australia. *Social Science & Medicine*, 62(11), 2874-2886.
- Popping, R.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Price, V., & Tewksbury, D. (1997).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theoretical account of media priming and framing. In G. A. Barnett & F. J. Boster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Advances in persuasion* (vol. 13, pp. 173-212). Greenwich, CT: Ablex.
- Rehkopf, D. H., & Buka, S. L.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e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area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cal Medicine*, 36(2), 145-157.
- Rice, R. E. (2005). New media/internet research topics of the association of internet researchers. *The Information Society*, 21, 285-299.
- Rothman, B. K. (1998). *Genetic maps and human imaginations: The limits of science in understanding who we are*. New York: Norton.
- Rozin, P., & Royzman, E.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296-320.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sup>nd</sup> ed.). White Plains, NY: Longman.
- Sieff, E. M. (2003). Media frames of mental illnesses: The potential impact of negative frames. *Journal of Mental Health*, 12(3), 259-269.
- Stack, S. (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7-971.
- Tousignant, M., Mishara, B. L., Caillaud, A., Fortin, V., & St-Laurent, D. (2005).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f the suicide of a well-known Quebec reporter: The case of Gaëtan Girouard. *Social Science & Medicine*, 60, 1919-1926.

- Tsai, C. W., Gunnell, D., Chou, Y. H., Kuo, C. J., Lee, M. B., & Chen, Y. Y. (2011). Why do people choose charcoal burning as a method of suicide? An interview based study of survivors in Taiwa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1, 402-407.
- Tutzauer, F. (1993). Statistical comparison of communication networks. In W. D. Richards Jr. & G. A. Barnett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pp. 135-163). Stanford, CT: Ablex.
- Vegeer, M., Lim, Y. S., & Park, H. W. (2011). Online social capital: New methods to measure social capital.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1(5), 430-449.
- Wharf-Higgins, J., Naylor, P. J., Berry, T. R., O'Connor, D., & MacLean, D. (2006). "The health buck stops where?" Thematic framing of health discourse to understand the context for CVD preven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1), 343-358.
- Wikler, D. (2002).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health.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6, 47-55.
- Zong, Q. J., Shen, H. Z., Yuan, Q. J., Hu, X. W., Hou, Z. P., & Deng, S. G. (2013). Doctoral dissert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China: A co-word analysis. *Scientometrics*, 94(2), 781-799.

최초 투고일 2015년 8월 4일

게재 확정일 2016년 3월 18일

논문 수정일 2016년 3월 30일

#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Suicide Reporting from 2005 to 2014: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Daewook Kim

Part-time instructor, Hanyang University

Myungil Choi

Associate Professor,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suicide reporting from 2005 to 2014 in order to explore how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newspaper influences on suicide reporting. Results of this study illustrated that the *Chosun Il-bo*, conservative media, has mainly focused on school violence, Jang Ja-yeon, and suicide method/behavior, while the *Hankyoreh* has primarily focused on school violence, women, labor, and suicide method/behavior. The results of periodical comparison, the *Chosun Il-bo* has paid more attention on suicide method/ behavior at the first-period, celebrity suicide like Jang Ja-yeon and former-president Roh at the second-period, and suicide by school violence at the third-period. The *Hankyoreh* has primarily focused on suicide of general people at the first-period, Jang Ja-yeon and KAIST suicide case at the second-period, and suicide by school violence at the third-period. Accordingly, those results suggested two national newspapers have different attentions on suicide issues. However, both two newspapers have less focused on suicide prevention and solutions for decreasing suicide behaviors. This study also emphasized responsibility of journalists and suggest alternative ideas to change this situation.

Keywords: *Chosun Il-bo*, *Hankyoreh*, suicide reporting, semantic network analysis